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비움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날을 잡았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몸과도 습기에 몸과 마음이 지쳐 아무 것도 행동에 옮기기가 싫다. 새벽운동을 나서볼까 하다가 공부방을 열어 본다. 그 순간, '그래, 공부방 정리한다고 했지, 방학하면 닥이야'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왔다. 비도 내리고. 새벽부터 궁상 궂게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대충 두서없이 시작했다.

솔이 탁 막혔다. 선풍기를 찾아 스위치를 누르니 얼마나 시원하지 모른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공부방에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상자부터 운동복, 테니스 라켓과 공, 각종 택배 상자 등으로 장난이 아니다. 그 누가 찾아올까 두렵다. 이것이 바로 '돼지우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참피한 마음이 서서히 오르내린다.

말이 좋다. '공부방'이다, '공부방'에서 얼마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지 가물가물하다. 기껏해야 책장을 넘기며 커피 한잔에, 글을 쓰는 정도로 이용된 장소다. 방을 채운 책의 화려한 잔치에는 '나'라는 주인공이 서 있다. 언제까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미루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너무나 지지분한 공부방을 바라보는 두 눈은 쉴사리 어디에도 고정되지 못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가장 눈에 띄는 상자부터 열어본다. 그리고 수백 권이 되는 책장에 둥지를 튼 책부터 분류작업을 시작했다. 책 중에서도 먼지만 가득한 10년이 넘게 펼쳐보지 않은 학회지와 참고서적을 퇴출 목록에 담는다.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책자는 내 손을 자꾸만 괴롭힌다. 그동안 정이 들어서인지 내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도서관에라도 기증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버리시려고요? 이 아까운 책을, 제가 드면 안 될까요?"

"그래, 필요한 책 있으면, 가져가거라."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빠가 어렵게 구하고 모은 책인다……"

"과감하게 정리해서 공부방을 비우려고……"

"……"

방학을 맞은 아들이, 새벽부터 알 수 없는 소용한 정리에 부스스 눈을 부비며 다가온다. 아비지의 낯선 행동에 당황한 눈치다. 그러면서, 방바닥에 정리한 책을 보며 미소를 보낸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그래왔다. 아들은 이번에도 나의 '공부방' 정리가 쉽지 않음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새벽부터
비다
열대야를 시켜줄 소리만
요란한 비다
뒤통수를 갈겨주는 시원한
소나기다
이 비가 그치면, 미친놈처럼
해벌쩍 웃으며
동네 한 바퀴 비가 남긴 흔적을
찾아 비우려 한다
긴 세월의 흔적을 지우려 한다
집착을 애정이라 착각한
자아는 거미보다 못하다
더 얇은 비움이 되지 말자
사이다 같은 햇비를 가득 담은
공간이 비움이다
그 몹은 당신, 바로 너와 나다

-박여범, '비움' 전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시간과 약간의 돈만 있어도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한 두 권을 사와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책이 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공부방 가득 가득이 된 그들을 바라보면 배가 불렀다. 그런 책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심이다. 그러나 이제는 긴 세월의 흔적을 지워야 할 때이다.

눈만 뜨면 변해가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것은 소모전이다. 곤대의 시각으로 그 시대에 집착하는 애정은 집착이다. 진정 책을 사랑하는 최후의 생존자인 한 마리의 거미보다 못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이런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과감하게 비워보려 한다. 더 이상 얇은 비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사이다 같은 햇비를 가득 담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몹은 당신, 바로 너와 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딕시 산불'로 불타는 차량

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체스터에 '딕시 산불'이 번지며 차량에 불이 옮겨붙고 있다. 이 지역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로 인해 화재 경보와 대피령이 내려졌다.

레바논발 로켓 잔해 치우는 이스라엘 보안군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키리야트 시모나에서 이스라엘 보안 요원들이 레바논 측에서 발사한 로켓탄의 잔해를 처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로켓 3발을 이스라엘로 발사해 포격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사 설

광복회 전북지부의 8.15 기념 콘서트

광복회 전북지회가 다가올 개천절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광복회 전북지회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광복절 기념 공연 시낭송 콘서트'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양한 시낭송과 성악가, 악기 연주가, 그리고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광복의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된 것이다.

공연의 주제는"당신, 수천만 금석으로 모시어도 가벼워라"이다. 2부에 이어지는 공연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꾸며졌다. 나니레국악단의 '광복군가'를 시작으로 성악과 변사 임인환이 등장한다.

이육사의 '광야' 시가 낭송되고, '임실 만세 소리'가 노래로 다시 태어난다. 군무(群舞)에 이어 '백골예찬' 시 낭송 그리고 기타와 오카리나, 춤이 함께 어우러진다.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시낭송이 진행되면서 비보이가 출연하여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이어 '넋은 별이 되고' 시낭송과 함께 랩이 등장하기도 한다.

조태일의 '국토서시' 시 낭송과 함께 아쿠 그리고 나니레국악단이 한 번 더 출연한다. 마지막으로「아! 대한민국」을 열창하며 공연의 대미(大尾)를 장식하게 된다.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한 거리 두기 좌석제를 운영하고 있다. 방역 소독, 발열 체크 등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회장은 "개천절 기념 공연시낭송 콘서트를 통해 애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광복을 경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복의 기쁨이 전북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속 제12회 소묵서화회전

코로나와 폭염 속에 마음의 위안을 얻는 묵향(墨香)의 자리가 전주에서 열려 예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을 일으켰다.

소당 김연익을 사사하는 문하생들의 모임인 '소묵서화회(회장 박병래)'가 지난 6월 30일부터 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차오름실에서 열두 번째 그룹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소묵서화회(素墨書?會) 회원 47인은 사계절과 매난국죽(梅蘭菊竹) 등 글귀를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붓끝에서 피어나는 사계절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

장수(長壽)와 다복(多福) 등을 상징하는 동식물과 글귀를 담은 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계절의 흐름과 생명의 약동을 묵향으로 전하는 전시가 열린 셈이다.

묵향을 사랑해 소당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은 지난 2006년 창립전을 펼친 이래 즐기차게 작품 활동에 매진해왔다. 회원들 가운데는 붓을 잡은 지 20여 년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까지 있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을 가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소묵서화회는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매우 컸다.

그래서 지난해 아쉬움까지 모두 이번 전시회에 담았다. 코로나19가 또 다시 4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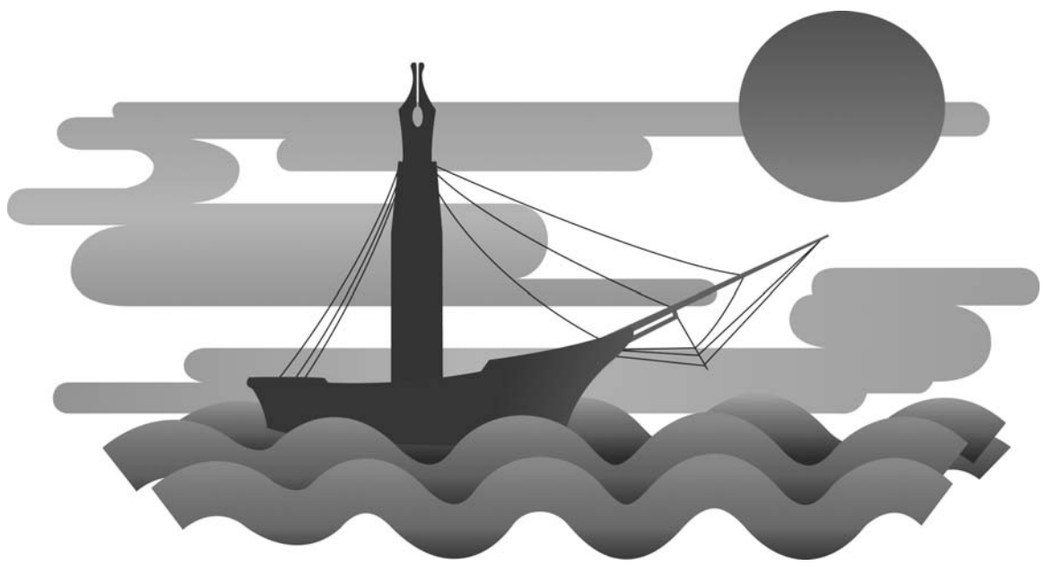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유난히도 뜨거운 태양까지 작열하고 있다. 그늘과 바람이 간절히 생각나는 요즘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묵향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회원들은 밝혔다.

동양에서 묵(墨)은 학문, 예술, 문학의 초석으로 시서화(詩書畵) 일체라는 말이 있다. 문학과 글씨와 그림이 어우러진 문인화는 동양예술의 진수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인화 정신과 미학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